



6면

전북, 에너지산업 글로벌 핵심기지로

전주매일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음 4월 15일) 제350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지사 관사, 도민 품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하안양옥집’ 정식 개관 도내 예술가 전시·공연 도민 소통공간도 마련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관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거듭났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약속한 “도민에게 관사를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실현함으로써, 53년 만에 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도지사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하안양옥집’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이병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위원장, 지역 언론사 대표, 한옥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도지사 관사 개방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관영 도지사가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식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광역단체장 등의 관사가 권위주의, 예산 낭비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전국 민선 8기 단체장들이 줄

줄이 관사에 입주하지 않았다. 전북자치도는 김 지사의 결단에 따라 관사 활용계획 수립 과정을 소통과 협치의 도정을 실현하는 무대로 삼아 도민 의견을 중심으로 활용 조안을 수립했고, 의회와 상임위 협의 및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사가 완벽하게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관 집들이 기념으로 마련한 ‘들덕전’은 도내 청년 작가 8명의 회화, 조소, 공예 작품 전시회가 진행중으로 도내 작가들의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첫 사례로 앞으로 지역작가 전시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경운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그간 도지사 관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타 시도 등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작은 비용으로 알찬 전시공간을 꾸기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주를 찾는 외국인과 도민들이 많이 애용하여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개관식에서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 관사를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실행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전북자치도민의 다양한 문화공간 활

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정사의 미래 그림을 그려나가는 소통공간이자 문화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김관영 도지사께서 취임 후 도지사 관사를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멋진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예술작가들의 열정을 발산하고 영감을 교류할 수 있는 중심지이다”고 강조하며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향유 명소가 자리매김 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8년간 거주했던 공간이 멋진 문화공간으로 바뀌어져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전북의 많은 예술가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 멋진 예술의 집으로 만들어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도지사 관사는 경기전길 67에 위치하며, 2층에 올라서면 한옥마을이 한눈에 들어오고 경기전을 내려볼 수 있어 한옥마을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방문해야 할 필수코스가 될 것 같다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다. /이만호 기자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 공약으로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도지사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도민들에게 개방을 시작한 21일 ‘하안양옥집’ 개관식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하안양옥집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野,尹 채상병 특검 거부에 “28일 재투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행사하면서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전문이 감통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대규 모 장외 집회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뉴시스

민주당은 5개 야권 정당 등과 함께 한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재표결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아원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사익을 위한 것으로 위험 소지가 충분하다”며 총력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 6당과 시민사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

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번째”라며 “이는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위헌성’ 공방을 벌이는 한편 21대 국회 내 본회의 개의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 전선은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

‘책과 사람 있는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익산시, 23~24일 ‘전국 작은도서관 대회’ 지자체로서는 최초... 관계자 800여명 참석 기조강연·사례 발표·시티투어 등 마련

익산시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관계자들이 모이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열린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24 전국 작은도서관 대회’를 오는 23~24일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과 송산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한국작은도서관협회(이사장 정기원)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책과 사람 있는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이며, 작은도서관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정보·교육·문화의 마을 거점기관인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

화와 운영의 질 향상, 실무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오지은 서울 대표 도서관장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관계’를 주제로 기조강연 펼치며 대회의 시작을 연다. 이어 사례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우수 도서관 9곳에 대한 표창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제별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지원 및 정책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운영 활성화 방안 △작은도서관 연합 운영 방안 등 3가지의 주제로 이뤄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날 강의뿐만 아니라 사례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공립·사립·아파트 분야별 우수 도서관의 발표와 문화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익산시의 작은도서관과 관련 단체,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전시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익산시의 작은도서관과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티투어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탐방과 자유로운 익산관광이 가능한 개별탐방으로 구성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담당자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에게 익산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탄력’

전북자치도,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사업 최종 선정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369억3000만원 투입

전북자치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혁신을 앞당기는 실시간 고도분석 인프라를 조성에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는 실시간 고도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핵심 소재 시험·분석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 특성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핵심 소재인 전구체 설계부터 양극재, 셀 제조까지의 기술 개발 및 분석·평가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2028년까지 5년간 369억3,000만원(국비 150억4,000만원, 지방비 218억9,000만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소재 실시간 고도분석 기술개발·분석·평가 등을 위한 장비·기술을 관련 기업에 지원하고, 장비관리자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 확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 지도로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북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등 6개 기관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연구시설용지)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 20종을 구축해 실시간 고도분석 프로세스·성능평가를 통해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통해 전북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발전을 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공예 * 로의 완주 * 의 식 * 을 * 다

WANJU CRAFT WEEK 2024

5.17.금 ~ 5.19.일

26.일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일원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5.17.금 - 6.16.일	공예展	3색의 식을 담다	누에아트홀
5.17.금 - 5.26.일	공예클래스	삶과 자연을 담다	공예광방
5.18.토	아트마켓	손안에 완주를 담다	누에잔디밭
5.19.일	공예강연	실용과 심미를 담다	누에실마리카페

문의 063.262.3956

주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문화재단, 완주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24 공예주간 KOREAN CRAFT WEEK 2024